

‘6년 체증’ 확~ 시원하게 뚫렸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 복구를 사실상 마무리한 22일 서구 치평동 시청인근 왕복 8차로가 6년만에 제모습을 되찾았다. 시는 2019년 9월 착공 아래 공사 구간 도로에 설치했던 펜스와 시설물을 모두 걷어냈다.

광주시 도심 주요 도로 지하철 공사 펜스 걷어내 극심한 정체 ‘끝’
백운광장 등 일부는 내년 상반기 완료…2027년 하반기 개통 목표

지난 6년간 광주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가로막았던 공사 펜스가 걷히고 막혔던 도로가 다시 뚫렸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 구간의 도로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그 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와 소음, 먼지를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돌아왔다.

다만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광장과 일부 자재 반입구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2일 강기정 시장과 김준영 시민안전 실장, 시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개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시장을 출발해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 조선대, 광주역을 잇는 현장을 버스로 순회하며 복구된 도로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9월 착공 이후 줄곧 2~4차로로 축소 운영되던 공사 구간 도로는 착공 전 수준인 왕복 6~9차로로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총연장 17km 구간 중 이날까지 개방이 완료된 구간은 16.3km다. 당초 목표 개방률 100%를 달성한 수치다.

하지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개방이 미뤄진 687m 구간이 남아있다. 이 구간은 크게 백운광장 일원과 지하 공사를 위한 자

재 반입구 4곳으로 나뉜다. 백운광장 일원(240m)은 단순한 지하철 공사가 아닌 복합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방 시점이 가장 늦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백운광장은 지하차도 공사가 지하철보다 2년 늦은 2023년 11월에 착공했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공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경에야 완전한 도로 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미개방 구간인 4개 정거장(금호지구입구 사거리 204정거장 120m, 금호시영아파트 앞 205정거장 102m, 무등시장 주변 210정거장 105m, 광주역 뒤편 219정거장 120m) 주변 총 447m는 지하 구조물에 대형 장비를 반입하고 반출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당초 16개소였던 자재 반입구를 공기 단축과 시민 편의를 위해 4개소로 대폭 축소 운영 중이다. 해당 구간은 지하 내부 마감 공사와 자재 반출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복공판을 걷어내고 도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개방된 16.3km 구간 중 아스팔트 최상단 마감재인 ‘표층’까지 깔끔하게 포장된 구간은 10.4km(64%)다. 나머지 5.9km(36%)는 그 아래 단계인 ‘기층’ 포장 상태로 개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사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민원도 제기됐으나 시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다림”이라고 강조했다.

지하 굴착 후 흙을 다시 매운 도로(되메우기 구간)는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정대로 다짐 작업을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으로 미세한 침하(잔류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1단계 공사는 ‘예측 불허’의 연속이

었다. 땅속을 파보니 당초 설계보다 46.1%나 많은 암반이 쏟아져 나왔고 전력선, 통신선, 상하수도관 등 지장을 역시 30년 전 도면보다 1.8배나 더 복잡하게 얹혀 있었다. 여기에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 악화까지 겹쳤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단 한 건의 사망사고 없이 ‘무재해’ 기록을 이어온 점은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년여간 공사 소음과 교통 체증 등 슬픈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인내 덕분에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로 나아가는 핵심 인프라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백운광장과 일부 구간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며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남은 공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수용했다. 〈관련기사 3면〉

정청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

한 바 있다”며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심도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

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변화는 특검에 반대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도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서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 출범

여야 18인 ‘제주항공’ 진실 규명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2일 낮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국조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 준비를 마쳤으며, 여야는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다짐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돼 실무 협의를 주도한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염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문수·김상숙·김성희·이광희·이연희·전진숙·정준호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서천호·이달희·이성관·정성국 의원이 이름을 옮겼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윤종오·최혁진 의원이 합류했다.

특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관급을 포함한 대규모 증인 채택도 이결했다. 채택된 기관 증인은 총 23명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항공사 핵심 책임자가 망라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윤덕 장관과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등이 증언대에 선다. 사고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김기훈 사무국장과 이승열 조사단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호중 장관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이 출석해 당시 상황 대처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참사의 당사자인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이사 사장과 공항 시설 관리를 맡은 한국공항공사의 박재희 사장 직무대행도 증인으로 채택돼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5 결산-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환경 감시 ▶6면

굿모닝 예향 - 남도 체험로드 ‘나주’ ▶19면

광주FC 정지훈 ‘해결사’로 거듭난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곳곳이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

<모범택시3>, <똑똑 속았수다>

<파인·춘뜨기들>

전라남도 로케이션 촬영지일

전남배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전남배우

★★★★★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를 보고
너무 예쁜 곳에 살고 있다고

전라남도 찾아가는 영화관 ‘마을영화’

저에게 전남연기캠프는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발판이에요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컨테이너 특별관 야외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별도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